

오피니언

光日春秋

이우영



지난 18일부터 21일부터 평양을 다녀왔다. 대북지원 단체 '남북여개동무'가 평양 영·유아들을 위해 마련한 '공유유 공장' 준공식에 참가하기 위함이었다.

었다. 교통량의 증가는 시민의 이동성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군밭과 군고구마를 파는 길거리 매대의 증가와 더불어 상업 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정상회담 이후의 평양

건너 큰 시장을 볼 수 있었고, 기념품점은 가는 곳마다 있어 남쪽 손님의 지갑을 탐내고 있었다. 그리고 상점의 점원들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기 위해서 열심히였다.

평양 시민·밤거리 활기

2년 만에 방문한 평양거리는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다. 무엇보다도 일반 자동차를 포함하여 전차·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의 왕래 빈도가 높아졌다는 점이 눈에 띄

던 아이들도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응답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부담스러웠을 남한 손님의 시선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과거와 달리 남북한 사람들이 같은 공간에서 부딪치고, 담소하는 것을 막지 않은 북한 당국의 결정도 의미 있었지만, 평양의 공공장소나 묘향산의 등산길에서 만난 북한사람들 대부분이 남한사람들을 스투머없이 자연스럽게 맞아주었다.

평양의 외면적 변화나 사람들의 행동 변화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시

만 하더라도 10여년동안 평양에 어린이 병원을 지어주고, 흉고 굶주린 아이들을 꾸준히 보듬어 온 결과 상호이해가 돈독해졌다.

자주 만나야 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어둠동무 어린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북쪽의 아이들을 볼 때는 답답함과 안쓰러운 그리고 적지 않은 분노감에 휩싸였다. 조금 더 마음을 열고, 그 만큼 문을 연다면, 북 어린이들의 고통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평양이외의 지역은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러한 느낌은 더욱 강해졌는데, 일차적으로 북한 당국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남한 당국이나 남한의 보통사람들은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하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아이들을 위한 공유유 공장의 기계를 소독하는 솔조차 어렵게 구하는 북한, 어린이 병원의 기초적인 물품을 절실하게 부탁하는 북한사람들을 여전히 괴물과 같은 공포의 대상으로 각색하고 있는 남한의 어른들을 생각하니 참담한 마음마저 금할 수 없었다.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심상치 않은 물가 서민경제 조들린다

물가가 불안하다. 최근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공산품 가격과 장바구니 물가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저물가 시대를 주도해온 중국경제가 6%를 웃도는 물가 상승 등으로 인플레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물가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원자재 가격 급등세는 국제유가는 물론 비철금속, 금, 곡물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우려가 크다. 국제유가는 이미 배럴당 80달러선을 돌파했고 금, 곡물 가격 등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양동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 측면이 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원유 값 급등은 이미 생활품 가격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화장지 가격이 5~10% 올랐는가 하면 세제 역시 7~8%나 경총 뛰었다. 가공식품류 가격도 심상치 않다. 국제 곡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밀가루 값 상승률이 두 자리 숫자

를 넘어섰고 라면, 과자, 빵 값 역시 뿔박질하고 있다.

채소값의 고공행진도 계속되고 있다. 배추와 무값은 1년 전에 비해 3배나 올랐고 대부분의 양념류 채소도 큰 폭으로 뛰었다. 이에 따라 김장비용은 지난해보다 50%나 더 소요될 전망이다. 벌써 주부들은 장보기가 두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연간에는 장바구니 물가 상승이 대외 약세 때문에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국제유가와 원자재 값 상승이 지속될 전망이고, 중국의 인플레이로 더 이상 값싼 중국 상품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가가 불안하면 당장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타격을 받는다. 정부는 대외 발(發) 인플레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선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가장 중요하고 있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유류세 인하 등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방식 개선 서둘러야

광주시내 사립학교들의 교사채용이 아직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상당수 사립학교가 교사를 채용할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관련 규정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채용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올해 교사를 뽑은 61개 중·고교 가운데 18개 학교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고 27개 학교는 인사위원회 규정에 교사 채용 관련조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방식으로

들은 상대로 교사로 채용해주겠다고 수천만원씩 돈을 받아 가로챈 광주 사립학교 설립자의 손자를 구속했다. 학교 재단에 공식 직함이 없으면서 설립자의 손자라는 점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여온 혐의다. 8명으로부터 3억2천만원

을 쟁취하니 어이가 없다.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해야 한다. '밀실 채용'이나 '뒷구멍 채용'으로는 '비리의 온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사립학교도 인사위원회 심의 등 공립학교와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교사를 채용해야 비리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사립학교 교사 채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사학 비리가 근절되지 않으면 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가게 된다. 당국은 사학의 교사채용이 공정하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고속도로를 얘기할 때 흔히 거론되는 것이 독일의 아우토타이다. 1933년 본과 쾰른 사이 20km 구간에 건설된 것이 효시다.

자동차가 시속 160km 이상으로 고속 주행하면서도 정보기술을 이용해 안정성이 보장되는 '지능형 고속도로'다. 타이 어와의 노면 마찰로 인한 소음도 최소화돼 쾌적함은 기본이다.

1933년 집권한 히틀러는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도로 건설'을 역설하며 2차대전 발발 전까지 4천km의 아우토타를 닦았다. 현재 국내 고속도로 총 연장이 3천300km인 점을 감안하면 대역사였을 짐작케 한다.

포틀러 원(F1) 국제 자동차 경주대회 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가 스마트 하이웨이 유치에 나섰다. 스마트 하이웨이는 스피드가 생명인 자동차 경주대회 이미지와도 부합된다.

아우토타는 한국의 고속도로 건설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4년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은 아우토타를 달려본 뒤 고속도로 건설을 지시했고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개통했다.

무안국제공항과 F1 경주장을 잇는 직선도로를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하거나 광주~무안 등 건설중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로 인해 자동차 1대당 연간 9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39조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은 사회면 고속도로로 인해 자동차 1대당 연간 9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39조원에 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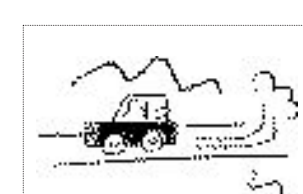
고속도로도 진화하고 있다. IT, 자동차 기술 등이 융합된 첨단 고속도로인 스마트 하이웨이 건설이 오는 2016년까지 추진된다. 스마트 하이웨이는 첨단

대회 이미지와도 부합된다. 무안국제공항과 F1 경주장을 잇는 직선도로를 스마트 하이웨이로 건설하거나 광주~무안 등 건설중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고속도로로 인해 자동차 1대당 연간 9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39조원에 달한다.

광주·전남은 사회면 고속도로로 인해 자동차 1대당 연간 9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39조원에 달한다.

스마트 하이웨이



특히주요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정신과 의사 김홍식의 LA통신

개인적으로 인간 관계에서 '배은망덕' 만큼 큰 죄는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사기·절도·모함 등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대로 참을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나에게 큰 은혜를 입었던 사람에게 그같은 일을 당하게 되면 정말 응서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은 그 나라를 위해서 베트남과 이라크에 파병했는가. 한국전에서 아들 잃은 부모나 평생 안고 살아야 하는 장애로 병상에 누워 있는 장애인들의 심정을 한번이라도 헤아려 봐야 한다.

임장을 바꿔보자. 만약 우리가 그런 식의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때 미국에서는 자신들의 나라 젊은이들이 피 흘려 지켜준 나라가 세계사에 유례가 드물 정도로 빠르게 경제 발전을 하는 것을 보고 호모해하고 자랑스러워한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은 아니다.

얼마 전 미국 사람들이 가장 혐오하는 민족이 조사 대상 나라 중 한국 사람이라는 부끄러운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수년 전부터 일고 있는 한국인의

기고



최현주

국토서남권의 교통·경제·문화·교육·행정의 중추 거점도시인 광주에 있어 국제공항은 지역발전의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프라다. 더욱이 내륙도시인 광주가 글로벌 비즈니스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해줘야 한다.

폭으로 지난해에만 128억원의 적자를 냈다. 반면, 미국 뉴욕에는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등 3개의 공항이 있고, 시카고에는 오ヘア공항과 미드웨이공항, 일본 도쿄에는 나리타공항과 하네다공항이 있는 등 세계 주요도시들은 2~3개의 공항이 적절한 기능분담을 하면서 공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교통부가 오는 11월 8일 무안공항 개항과 함께 광주공항의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옮기고 내년에는 국내선 기능도 이전하겠다고 한 것은 광주시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무책임한 조치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무안국제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우선 정부는 신규 노선 개설과 수요 창출을 위한 과격적인 지원에 힘써야 한다. 이것이 광주·전남의 생생발전의

광주공항은 민·군공항이 함께 있는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서도

도로로 인해 자동차 1대당 연간 900여만원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139조원에 달한다.

광주·무안공항 공존해법 찾아야

광주시와 지역민의 노력으로 주 11회의 국제선 운행 등 항공수요를 창출하여 지방공항으로는 드물게 흑자경영을 하고 있다.

최고로 위헌회가 열릴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당도 쟁기고 해외여행 경비도 지원받는다. 보수를 받아가는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 행정을 잘 감시하라고 뽑아냈더니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들여놓은 꼴이라는 말이 들려서는 안된다.

그러나 정부는 무안공항의 조기 정착을 위해 신규노선 개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광주공항의 국제선 이전만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142만 광주시민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월급값 못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택한 부실한 유권자와 그들을 검증하고 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언론, 시민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실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공항으로 옮기면,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광주 시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만 늘어날 뿐, 전남 동북부와 전북지역 이용자들이 대폭 감소하게 돼 있다. 광주 경제에 만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는 광주공항 국제선의 이전방향을 즉각 철회하고 광주·무안공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광주시 경제산업국장>

의정 팽개친채 대선에 빠진 지방의원들 '월급 아깝다'

"말타면 중 월급고 싶다"는 속담이 있다. 지방의원들에게 딱 맞는 표현인듯 하다.

도로 위헌회가 열릴 때마다 일정 금액의 수당도 쟁기고 해외여행 경비도 지원받는다. 보수를 받아가는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지방 행정을 잘 감시하라고 뽑아냈더니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들여놓은 꼴이라는 말이 들려서는 안된다.

현재 지방의원들에게는 많은 액수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지방자치제를 시작할 때 그들은 무보수 명예직으로써 오직 지역 발전과 내고장 향토의 머슴이 되겠다는 시작하건대 이리저리 이유로 보수를 조금씩 받더니 지금은 월급을 받아가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월급값 못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택한 부실한 유권자와 그들을 검증하고 쓴 소리를 하지 못하는 언론, 시민단체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광역의원들의 연봉은 5천만원 정도다. 별

▲이준영·광주시 서구 마루동

배은망덕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분개하는 사람들이 많다. 대한민국도 그 배은망덕한 부류에 속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반미 정서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의견, 주장을 펴는 독자들도 많을 것이다. 특히 젊은이들의 경우 상반된 주장을 펼 수 있다. 그 전에 한국전을 경험한 세대인 부모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지금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세계 10위권에 속하는 경제 대국이다. 하지만 만약 한국전 때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이같은 발전이 이렇게 빨리 이뤄질 수 있었을까.

또 한국 정부에게 제안하고 싶다. 한국전에 참전한 16개국의 참전자·사망자·부상자, 아직까지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한다. 설마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가야하는지도 모르 채 국가의 '명'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간 5만6천여명이나 되는 미국 젊은이들이 바친 목숨도 한뼘 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한국 전쟁으로 인해 60년이 된 지금까지 병상에 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불구자들이 1천명이나 존재하는 게 미국 현실이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한 감사 편지를 쓰는 것도 한국인이 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한다. 설마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싸운 것이지 한국을 위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주장을 펴기도 한다. 자국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피해를 줄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린 자녀들에게 그들을 위한 감사 편지를 쓰는 것도 한국인이 그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확인해 인터넷에 올려놓으면 한다. 설마 모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가짜 북분자주 판친다니...수출길 막힐까 걱정

최근 일부에서 가짜 북분자주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키고 있다는 소식이 접했다. 그동안 꾸준히 전해오던 북분자주의 효능을 생각하며 술을 마셨는데 물자각한 장사치들의 행태를 들으면서 화가 났다.

북분자는 전통적으로 요강을 뒤통을 정도로 남성들의 양기를 북돋아 주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술로, 제대로 육성해 수출한다면 세계적 특화 상품이 될 수 있다. 이제

▲임광복·광주시 남구 구소동

광역의원들의 연봉은 5천만원 정도다. 별

광주일보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喆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始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제111호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대외 FAX 222-4918) <F A X 227-0118>
편 집 부 2200-629 문화체육부 2200-626 <F A X 2200-521>
경 처 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경 제 부 2200-617 체 육 팀 2200-627 <F A X 2200-536>
시 설 1부 2200-618 사 진 부 2200-690 서울지사 02-773-9331
시 설 2부 2200-552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액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